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2단계 엔진 고장 추락

비정상적 비행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軍, 잔해 수거
북, 2시간30분만에 실패 공식 인정…한미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북한이 지난 31일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여 만으로,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비정상적 비행으로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낙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면서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낙하한 북한 발사체 잔해 수거에 나섰다. 인양에 성공하면 추진체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쏜 것은 1998년 8월(광명성 1호)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다. 이 중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에 진입엔 성공했지만 정상 작동되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연합뉴스

군공항 반대에 28억 쓴 무안군에 공익감사 청구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이전대책위, 알권리 충족 정보 제공 요구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28억원의 예산을 수립·집행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3년 5월 30일자 1면〉과 관련 무안군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1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무안군이 지난 2019년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 군 공항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그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무안군은 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반대하면서 피같은 군민의 혈세를 더 이상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안군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 전문가 초청 군민공청회, 찬반토론회 등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군 공항 이전과 관련)무안군이 반대만을 일삼고 군민들에게 근거 없는 거짓 선동만을 일삼고 있다"며 "군민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미래 후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군민 모두를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으로 서남권 거점공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근 발족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안군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 2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행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작년 강원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에서 시범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신안군, 전북 고창군, 인천 강화군,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거창군, 부산 영도구 등 9개 지자체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11개 지역에서는 총 200여건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 20~60% 할인과 강원 평창군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30% 할인, 충북 옥천군 전통문화체험관 숙박 30% 할인, 부산 영도구 소재 4개 호텔 최대 20%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시범사업 결과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만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5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 지역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의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필수 응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추가 수당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공모

야간·휴일 진료 "경증 소아 환자 불편 해소"…15일 신청 접수

광주시가 진료 대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는 "오는 15일 하루 동안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평일과 휴일 24시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운영 조건을 충족한 병원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 후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심야 병원을 운영하고 연간 최대 1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야간, 휴일에도 2명 이상 전문의가 진료해야 하며 1년에 3일 이내로만 휴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일단 1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공모 신청과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야 병원 운영은 지난달 광주시가 발표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 34곳에 운영 중이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는 탓에 경증 소아 환자마저도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게 광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연중 자정까지 운영하는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야간과 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해 경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증 환자 분산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 곳을 지정하고 싶지만, 소아 환자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드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면서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대주택 정보 한 번에" 광주도시공사, 콜센터 운영

광주 도시공사는 "1일부터 임대주택에 관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콜센터(062-225-2280)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입주 안내, 계약(해약) 안내, 하자보수, 주택관리 등 각종 민원에 대해 신속·정확·친절한 'One-Call, One-Stop'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광주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콜센터 운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전달은 물론 대표번호로 신속하게 연결돼 입주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입주민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임대 주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전북(전주)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뽀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 및 청산종결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4월 28일자에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금번, 청산종결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이의가 있는 주주 및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7월 2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종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6월 1일
주식회사 더펜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26, 210호 (빛가람동, 케이원지식산업센터)
청산인 이 원 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윤승룡(660218-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각화대로 16, 101동 903호 (각화동, 골드클래스)

피상속인 망 윤승룡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3520호로 신청하여 2023년 5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6월 1일

• 상속인 : 1.윤진영(920610-XXXXXXX) 광주 북구 우치로234번길 4, 301호(오치동)
2.윤순호(951005-XXXXXXX) 나주시 삼영1길 61, 105동 205호 (삼영동, 부영아파트)
3.윤상호(951005-XXXXXXX) 광주 북구 각화대로69번길 16, 101동 903호 (각화동, 골드클래스)
• 신고기간 : 2023. 6. 1. ~ 2023. 8. 11.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 윤순호의 주소

산행안내

6월3일(토)

▲광주호산회 6월 3일(토) 〈옥천 대청호 부소담악, 미르정원길 트레킹〉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 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